



농약! 과연 안전한가?(끝)

사고 대부분 '부주의'로 발생

사용전 라벨숙지 · 살포시 보호장비 착용 · 살포후 몸 깨끗이 세척

-홍보부-

5. 농약 살포 시 주의사항은 꼭 지켜져야 합니다



방지해야 합니다.

사용 전 라벨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작업 시에는 보호장비(모자, 안경, 마스크, 고무장갑, 방제복)를 착용하여 농약이 피부에 노출되는 것을



농약을 살포 시에는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살포가 끝나면 보호구와 몸을 깨끗이 세척합니다.

분제와 훈연제와 같이 공중에 비산되는 양이 많은 농약을 살포 시에는 피부에 노출될 우려가 높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농약 사고의 대부분은 농작업의 부주의로 발생합니다

농약 사고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농약 사용 후의 작업관리 불량, 보관관리의 부주의에 의한 오음, 마스크나 방제복 등의 준비 불충분 등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방심에 의한 사고가 전체의 90% 이상입니다.

6. 농약 보관 중에도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농약은 가축과 사람이 섭취하는 사료, 식품, 음료수 등과 완전히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어린이와 노약자가 내용물을 혼동하여 섭취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사용하고 남은 농약은 다른 용기에 담아두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가 접근하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어린이는 내부기관이 완전히 발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면역체계가 떨어져 더 높은 독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7. 농약에 중독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농약의 중독증상

농약의 중독증상은 농약의 종류에 따라 다르나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고, 일부 농약은 피부와 안점막자극을 일으킵니다.



유기인계 및 카바메이트계 농약은 두통, 현기증, 설사, 발한 등의 증상과 피부에 묻으면 쉽게 흡수됩니다.

○ 응급처치

농약에 중독된 사람이 있는 경우 응급처치 전에 어떤 종류의 농약에 중독되었는지를 알아야 올바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중독된 사람이 의식이 없거나 호흡곤란, 경련을 겪는 경우에는 즉시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의 진료에 따르십시오.



중독된 사람이 의식이 있을 때에는 해당 농약의 라벨을 참조하여 응급처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부에 묻었을 때도 흐르는 물로 씻겨 낸 다음 비눗물로 완전히 씻어야 합니다.

8. ‘농약중독예방정보센터’ 홈페이지 운영

농약중독사고 예방과 중독환자 응급처치에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신속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약중독예방정보센터 홈페이지 주소 : <http://ppic.niast.go.kr>